

#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의 수출 회복을 위하여

노상철 |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



액자수출 선두업체인 (주)신일프레임은 페스티로폴로 만든

액자를 들고 1999년 처음으로 미국 아틀란타 데코전시회에 나가 우리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50만불 수출실적을 시작으로 2004년 1,200만불에 이르는 등 5년 사이에 가히 놀라운 큰 성장을 거두었다.

페스티로폴을 이용해 제작한 재활용액자는 원목액자에 비해 저렴하고 이태리산 원목 액자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.

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우리업계도 다른 제조업계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폭등, 환율하락(원화 강세), 고유가 등 이른바 3고(高) 탓에 서서히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.

가장 큰 원인은 액자프레임 원자재인 스티로폴 재생원료의 가격 폭등으로 제품수출 단가를 조정해야 했고 또한 원자재를 수출함에 내수가격보다 낮게 수출해 우리내수업체는 물론 수출업체도 큰 타격을 입었고, 환율 하락은 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갔다. 또한 최근 몇 년 새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. 중국 액자산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액자 완제품 시장은 중국이 다 차지한 상황에 이르렀다. 결론적으로 중국의 저가공세와 환율문제, 원자재 폭등으로 그동안 큰 성장세를 보이던 액자수출이 올 들어 더욱 주춤한 상태이다.

이에 우리업계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60여대의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. 국내에 60대분의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일거리는 더 늘어야 하는데 일거리가 더 없는 상황이다. 한마디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공장도 문을 닫을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.

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에 노력하고 원자재 가격조정으로 생산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 설 수 있다.

스티로폴 재생원료 생산업체와 액자프레임 생산업체가 다시 예전처럼 손잡고 협력한다면 중국에 빼앗긴 완성품 액자시장도 찾을 수 있고 양 업계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.

우리업계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.

자원재활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사용규제를 중단해야하며, 회수재활 용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지원과 배려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. ♣